☞ 17면에서 계속

내면에다 놓고 들어가야 정(定)에 들어

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가 될 수가 없죠.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구요.

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거래도, 생활이 이렇게 안되는데 어떠할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회자: 질문에 앞서서 포항 권영석 불자님께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염원을 성취한 감사와 더불어 그 체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질문자1: 먼저 스님들과 한마음선원 전 신도님께 소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다 성인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세 살 이전에 뇌성소아마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아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식이 걸으리라 생각하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나이 스물 한 살까지 걷기는 걸었습니다만 제대로 의젓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3년 8월 27일날 선원에 와서 조상님 천도재를 지내고 그 날 두 내외는 스님에게 "자식이 이렇게 잘 못 걷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를 지내고 내려갔습니다. 9월 3일 저녁, 딸애는 강릉에서 포항으로 왔습니다. 포항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내외는 딸에게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놓고 믿고 맡기고 관(觀)을 해라. 주인공! 내가 처녀인데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걷는 게 흉하잖아.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도록 걸을 수 있게 해.' 하고 관하라고 시켰습니다.

11시 이후에 저희 내외는 잤습니다. 그러나 딸애는 혼자서 응접실에서 불을 끄고 아마 관을 하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12시경 문을 똑똑 두드려서 보니깐 딸이 들여다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2분 후에 다시 들어와 또 두드리면서 좀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깐 뒤꿈을 한번도 땅에 딛지 않고 걷던 딸애가 뒤꿈을 땅에 딛으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께 또 선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높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내가 했다 내가 해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공용으로서 같이 진실하게 마음이 통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선 통신 받은 대로 자기 분야에 작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치도 믿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이름만 브르다가 좀 급한 일이 닥치면 아예 그냥 떼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여러분한테 모든 게 달려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 태양빛이 빛을 쬐지 말라 하고 빛을 쬐라 하더냐. 너희가 태양을 받으려면은 문을 열어놓고 가려진 것을 걷으면은 태양 빛이 들어오지 않느냐. 가려놓으니까 태양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물론 태양은 똥 구덩이든 아름다운 정원이든 다 비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태양 빛을 받고 안 받듯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태양 빛보다 우리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들어가는 빛은 깊은 바다 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태양 빛은 바다 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도 태양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은 땅 속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응통성 있게 진실하게 믿고 생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타파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십시오.

▲질문자2: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서 불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절의 주지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계사도 다니고 각 사찰에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정희 회원의 인도로 선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스님을 뵈려고 광명선원에도 갔었는데 가까이 뵐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음 요전도 보시 받아서 읽고, 또 설법하신 비디오 테이프도 저희 가족들과 같이 보기도 했고, 카셋트 테이프도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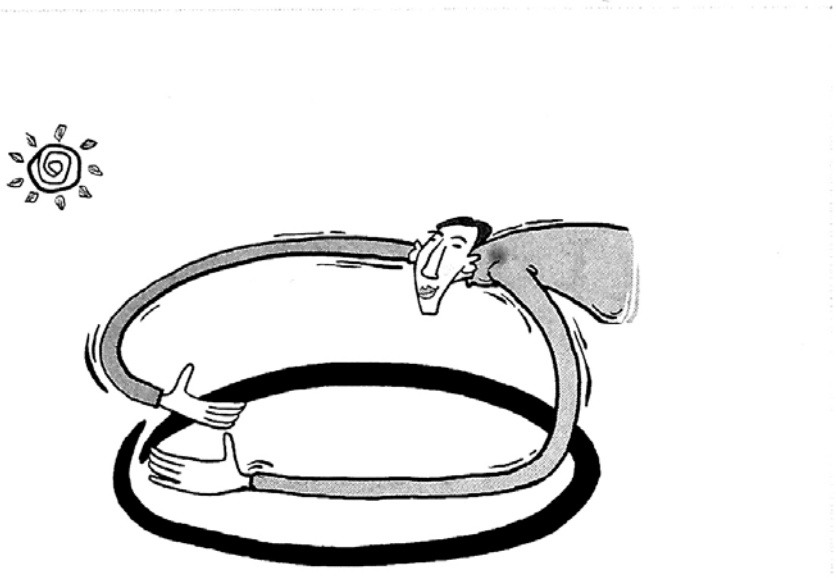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말씀하신 오점이 '믿고 관(觀)하라.' 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믿고 관하라는 그 말씀 중에,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걸 네가 한 것이니 믿고 관하라. 아는 것도 네가 알 것이고 모르는 것도 네가 알 것이고 다 믿고 관하라.' 그런데 믿고 관하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고 관하라.' 고 하셨는데, 그리도 여러 번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말씀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믿고 어떠한 문제든 타파해나갈 수 있는 능력 길러야

▲스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바깥이나 안이나 얼마나 모든 점에서 고달프겠어요? 사람도 다루어야 하니 그렇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거지 내가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觀)하라고만 일러주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요. 자기 몸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까지도요. 인간은 심부를 굳입니다. 자생중생들의 심부를굳이요, 또 자생중생은 부처님의 심부를굳이요, 자기의 심부를굳, 육신의 심부를굳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이지 뭡니까? 하하하.

▲질문자3: 불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두 인연따라 살아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한 원망과 미움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연따라 맺어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스님: 아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에 통신이 되면은 통신이 되는 대로 그 통신을 받고 바로 빛보다 더 빨리 움죽거려서 응신으로서 나투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도살장에 간다든가 또 싸움을 해서 구타를 당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서 남한테 해치기만 하고 일가친척인데도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이러면 마음이 가질 않죠? 마음이 가지 않으니깐 건져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런 얘깁니다. 내면에 '둘이 아닌데 모두가 불쌍하잖아.' 하고서 거기다 맡겨을 때에 바로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불이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게 건지는 겁니다.

요즘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하다 잘못돼 가지구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냥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밥도 못 해먹는답니다. 밥도 떠먹지 못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고선 오는 대로 가르쳐주었더니 지금은 아주 괜찮게 나았어요. 그러니 그게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통신이 되면은 모두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작용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몸도 혹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해야만 됩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 들아가는 생명들이 우주간 법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에도 그런 법계가 있느냐? 지구에도 세포가 있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항상 마음으로서 전달을 하면 안에서 누진(屢盡)으로 해서, 즉 골수로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은, 군인들이 왜 통신을 받으면 재깍 들진하죠? 재깍 일어나서 작용하죠? 그렇듯이 재깍입니다. 재깍인 대신에 빛보다 더 빠르다는 건요, 고 순간에 미국도 갑니다. 고 순간에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구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안 해보면은 전연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이라는 게 보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쓰지 않고, 허허! 뭘로 쓸까요? 독사처럼 쓰기도 하고 또 강도처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다음 생에는 그냥 그 모습을 해가지고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대로,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깨우친 사람에게는 잘해도 잘한 거고 못 해도 잘한 겁니다. 그걸 못하질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이 '왜 남들하고 똑같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꾸 달아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달아나가는 대로 내버져두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들아서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부러지지를 않죠. 그런 일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물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